

**포교사단 8세계 실천대법회 현장**



전국에서 모인 1천5백여명의 대중이 팔재계를 수지하고 지계를 다짐했다.

**10월 9일** 오전 합천 해인사 구광루 앞마당에는 하얀 천막 10여개 설치되고 자리가 깔렸다. 그리고 포교사 1300여명과 일반 재가자 200여명이 운집했다. 그야말로 말로만 들던 야단법석이다.

9일부터 10일까지 하룻밤 하루동안 조계종 포교사단 팔재계 실천대법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팔재계란 재가자가 하루 동안 사찰을 찾아가 출가수행자와 똑같이 수행하며 지켰던 8가지 계법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 것(不殺生),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 것(不偷盜),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 것(不淫), 거짓말을 하지 말 것(不妄語), 취기 있는 것에 취하지 말 것(不飲酒), 쾌락을 위해 춤, 노래, 연극 등을 보지 않고 지장하지 말 것,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 무절제한 식사를 금할 것을 말한다.

포교사단은 작년부터 지계실천운동을 벌이면서 팔재계법회를 병행해왔다. 어려운 사회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찾아낸 결론이다. 따라서 포교사들은 하나같이 지계실천이 전도된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나부터 실천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남달랐다.

양성홍 단장은 "수계는 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계는 연이나, 제철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진정한 계체를 형성시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포교사가 참석했다. 또, 참여를 원하는 일반 불자들도 받아들였다. 앞으로 모든 재가자들에게 확산시켜나가야 할 운동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8세계 실천 대법회는 많은 큰스님들을 모셨다. 증명에 종정 법전스님, 지관스님, 도견스님을 모셨다. 또 전계 대화상에 보성스님을, 갈마아사리에 종진스님을, 교수 아사리에 무관스님을, 유나에 세민스님, 해능스님을 모셨다.

저녁 7시 30분, "지금부터 포교사단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자 모두 외투를 벗고 나뉘준 주황색 티셔츠를 입으세요. 줄을 맞추시고, 여기를 기준으로 중앙은 띄워주세요" 이번 행사의 총괄 진행을 맡은 광명회 부단장의 지시에 포교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새로 만들어진 음성포교팀은 지계의 실천을 다짐하며 지계의 노래를 불렀다. 포교사단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쌀쌀한 날씨지만 외투도 벗어버리고 여법한 모습으로 총재 도영스님을 기다리는 1500여 포교사들 모습 자체가 불법을 수호하고 흥포하는 전령사로서 환희심을 느끼게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단상에 오르고, 기수단이 입장한다. 양성홍단장이 포교사단 기를 앞세우고 먼저 들어왔다. 다음 서울경기포교사단,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주전북 포교사단, 포교사단 기발 7개가 단상에 우뚝 세워졌다.

"팔재계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여 6바라밀, 10바라밀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도영스님은 "8관재계가 다음 생가지 연결되어 성불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추운 산사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길 당부한다"고 법문했고,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은 "계율은 불법의 생명이며 모든 불자가 의지하고 실천해야 할 등불"이라고 법문했다. "렝,렝,렝" 저녁 9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산사의 밤은 적막강산. 그러나 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팔재계법을 시작한 포교사들의 눈은 더욱 빛이 났다.



양성홍 단장과 지역 단장들이 법회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 기억해  
 신명나게 법 전할 터**

조계종 포교사들은 각자의 서원을 담은 서원지와 발원문, 사경지를 태우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포교에 나서길 발원하는 참가자들.

**포교사·일반 불자 전국서 1500여명 운집  
 종정 법전·지관·도견스님 증명 법사로  
 '실의죄' 봉독 후 계목에 삼배하며 각자 서원  
 촛불행진·사경지 다비의식... 실천의지 다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제 법단 위에는 양성홍 단장을 비롯한 6개 지역 단장들이 올라갔고, 목탁소리와 독경소리 보살계목을 봉독하는 소리가 가야산을 가득 채웠다. 천수경과 다리니 7독 후에 재가보살이

지켜야할 여섯 가지 중대한 법과 스물여덟가지 실의죄를 봉독하고 각 계목마다 삼배로서 지계의 마음을 다졌다. 마음을 담아 서원지도 작성했다. 서원지에는 저마다 발원이 다양하다. '국태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에서부터 '딸의 시험합격' 발원

까지. 11시 50분, 해인사 율원장 해능스님이 참석하여 포교사들의 수행을 이끌었다. 불빛처럼 사회를 밝히려는 서원이 담긴 촛불행진이 시작됐다.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 성불발원으로 밝힌 1500개의 불씨가 보광루 앞마당을 출발해 성철스님 사리탑을 친견하고 산내 암자인 흥제암을 지나 율원 앞 측구장까지 이어졌다. 잘 다듬어진 잔디구장에서 다시 한글 108 예참화문을 봉독하고, 좌선의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사경지와 발원문 다비의 시간, 율원 뒤쪽 공터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8일 전부터 매일 40분 넘게 준비해 온 사경지가 다비의식을 통해 지계실천으로 승화되고 있다. 전부 감탄과 감동의 빛이 역력하다. 그러

나 말이 없다. 그저 한없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중생심을 던져 넣고 있을 뿐. 다음날인 10일 오전, 단상에는 계단이 마련됐다.

밤을 지새우며 수행정진한 탓일까? 수계를 앞둔 포교사들은 눈빛만 반짝였다. 해인사 경내에는 향내가 진동하고 수계 의식이 진행됐다.

보성스님은 계첩을 수여하기 전에 "70, 80의 노보살님들까지도 불교를 위해 노력 하겠노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계를 전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스님은 "신명이 다하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해서 잊어주시 않기를 거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해인사=배지선 기자



포교사들이 서원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절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다.



철야정진으로 행해진 108예참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올 살바 못지 못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전원을 독송하며 연비하고 있다.



전계대회상 보성스님으로부터 계첩을 받고 있는 수계대중.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시	교통편	기간	일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임시정부, 육불사 참관 호텔 휴식
11월 28일	고속패리	09:05/11:30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패리	13:30/16:00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육왕사, 천동사 순례 황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서초유림, 명은사, 육취탑 참배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악보사, 담겨사, 용역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악역사, 연동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땅에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은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